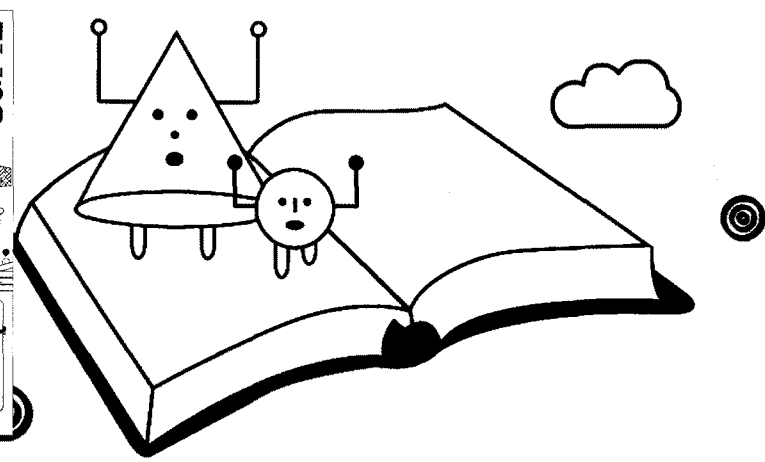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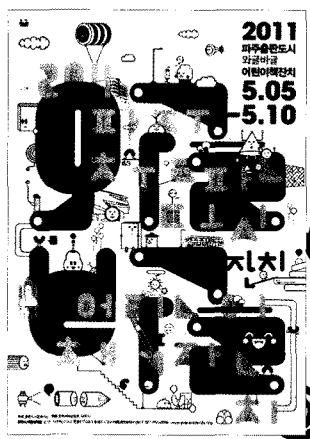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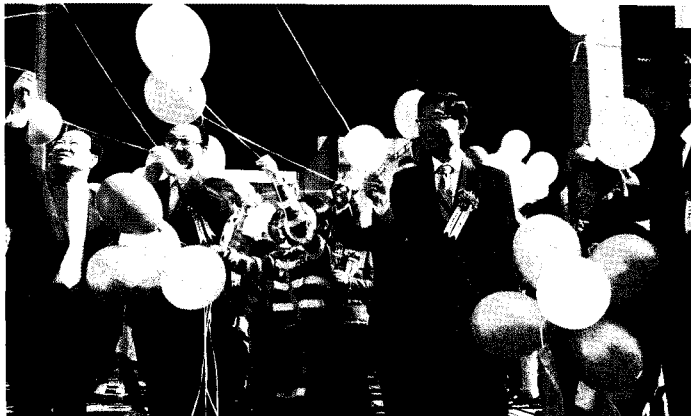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2011

한국아동문학가 100인전 등 문화행사 풍성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행사인 '어린이 책잔치 2011'이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파주시(시장 이인재)의 지원을 받고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이 주관한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 2011'은 햇수로 아홉 번째로 열린 행사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어린이들의 기념촬영
 어린이 책잔치 개막식을 축하기 위해 참석한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재단 이사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이인재 파주시장, 호주 일러스트레이터 앤 제임스씨
 개막식행사중 진행된 소원을 적은 풍선날리기 / 심학초등학교 풍물반 어린이들의 풍물놀이

본격적인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2011에 앞서 전날인 5월 4일 오후 3시에 파주아시아문화센터 1층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재단 이사장(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준비위원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웅 출판도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출판도시는 어린이로부터 배워서 건설한다는 표어를 걸고 시작했다. 이러한 출판도시에서 어린이들이 배우고 익히며 뛰노는 풍경이야말로 출판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착하고 아름다운 어린이 문화를 이뤘다고 하자”라고 말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출판 도시 특성을 살린 문화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 책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과 책임기의 즐거움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향후 어린이 책잔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파주 출판 도시 관계자 및 출판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진 후 심학초등학교 풍물반 어린이들의 풍물놀이, 어린이들의 소망이 적혀져 있는 풍선을 함께 날렸다. 이후 아시아문화센터 1층 마련된 한국아동문학가 100인전, 홍영우 옛이야기 그림책전, 세계의 딱정벌레 친구들을 돌아봤다.

와글바글 어린이 책잔치

100여 개의 출판사와 도서 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와글바글 어린이 책잔치’로, 어린이 독자를 위한 공연·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전시회로는 한국아동문학가 100인 서가전, 홍영우 옛이야기 그림책전, 세계의 딱정벌레 친구들, 호주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 출판도시 아트시티 프로젝트, 파주 아트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이 열렸다.

다양한 공연들도 진행되었는데, 5월 9일 월요일만 제외하고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에 맞추어 책잔치에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들이 진행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국아동문학가 100인 서가전’ 등 우리나라 어린이 책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테마 전시회였다. 아동문학가 100인이 그동안 펴낸 책을 통해 한국아동문학 100년의 역사를 책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100인 서가에 꽂힌 책들은 ‘어린이 책예술센터’에 보존된다. 이상배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은 “100년이 넘어 한자리에 모인 한국아동문학가의 풍성한 책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양식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더 많은 작품이 쌓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시장 한편에서는 아동문학가 100인의 동화를 읽어주고 그 동화에 대한 질문시간을 가져 정답을 말하는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해주는 행사를 가졌는데, 어린이들이 서로 정답을 맞추겠다며 손을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홍영우 옛이야기 그림책전은 보리출판사의 후원으로 아시아 문화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렸는데, 홍영우 작가의 대표적 이미지 20여점과 그림책속 흥길동 형상의 모빌 조각들로 전시장을 구성했다. 홍영우 작가는 구수한 우리 옛이야기를 간결함과 해학적인 붓놀림으로 완성시키는 그림책 화가다.

호주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는 아시아문화센터 1층 갤러리 지하에서 열렸는데, 한호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호주의 대표적인 어린이책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됐다. 특히 앤 제임스 일러스트레이터가 시연회를 열 때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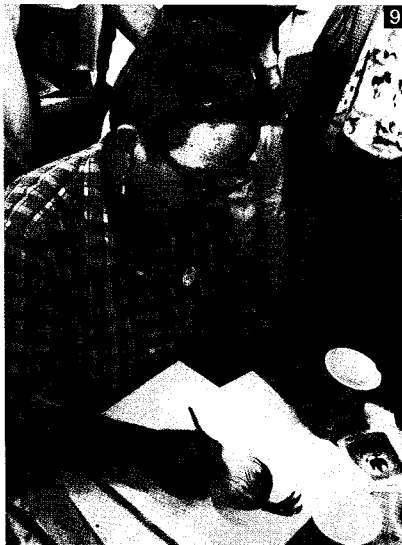
다양한 체험 참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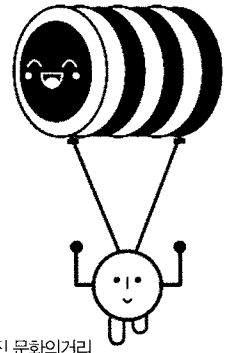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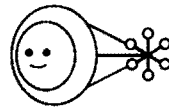
책잔치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됐다. ‘여기가 클레이땅’ 행사는 경기북구여성작가회 주관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됐는데, 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책만들며 크는 학교 체험전’ 행사는 한권의 책을 직접 완성해보면 책에 대한 애정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취지아래 어린이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책만드는 전과정에 간단히 체험하도록 했다. ‘스스로 만드는 책! 책! 책!’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앗 어떤 책을 만들까’는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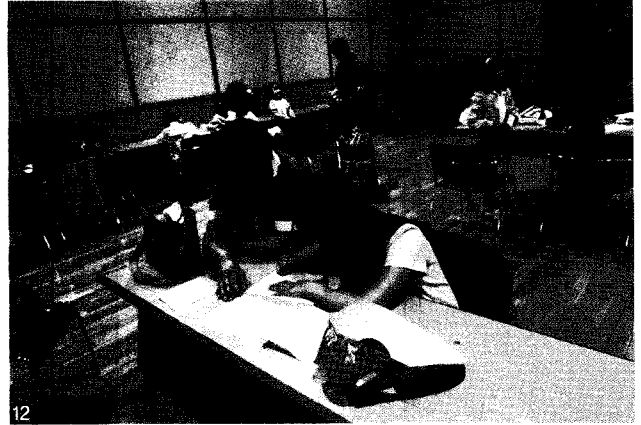


한국아동문학가 100인 서가전에 참여한 어린이들
호주의 대표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가 시연회를 하고있다.
비누방울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다양한 체험 참여프로그램과 어린이책 판매가 이뤄진 문화의거리 어린이들의 글 솜씨를 뽐내고있는 백일장 행사장



12

‘빙글빙글 책 미로’는 문화의 거리에 마련됐는데, 출판도시 한가운데 설치된 야외미로에서 출구를 찾으며 다양한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함께 감상하는 행사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한 가족’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주관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 네팔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까?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제1회출판도시어린이백일장’, ‘독서퀴즈대회’, ‘동화작가가 읽어주는 책은 내친구, 신나는 놀이터’, ‘오치근 선생님과 함께 하는 먹물놀이한바탕’ 등과 같은 행사도 열렸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비룡소, 시공사, 김영사, 창비사, 열화당등 30개 출판사는 사옥을 열어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광문각’은 인형으로 보는 나비의 일생동화구연, 나비나라 박물관 나비작품 공모전을 열렸으며, ‘길벗어린이 책소풍’은 밀림으로 돌아간 악어가죽 가방원화전시, <지원이와 병관이>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강아지똥 책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문공사 재미박스’에서는 도전! 메이플훈련왕, 부모님과 함께 영어단어왕 뽐내기 행사를, ‘보림아트스페이스’에서는 꼭두 일러스트교육원 창작 그림책전, 도자기 만들기, 포토존 가족사진 촬영하기, 북한어린이 후원행사 등을 가졌다.

‘성지문화사’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악기(오카리나)에 그림 그리기, 필통에 그림그리기 행사를, ‘열화당 도서관+책방’에서는 역사학자 이석우의 책방그림전인 ‘책 사이에 그림을

걸다’ 전시회와 ‘주머니속의 책 세계의 아름다운 문고본’ 전시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어린이 책 소개 및 원화 전시 등의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영화제

이번 책잔치에서는 영화제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아시아문화센터와 씨너스이체 영화관에서 진행됐다. ‘나도야 어린이 영화감독’에서는 일상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어린이들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기타 영상기기로 찍은 작품들을 출품하는 코너로 본선작 10편은 실제로 어린이책잔치 기간 중 씨너스 이체1관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다.

어린이(중학생 이하)가 직접 찍은 작품으로 형식과 주제는 자유로 이뤄졌다. 심사 역시 어린이들이 진행했는데, 심사위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3학년까지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영화로 변신한 동화책’은 책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됐으며, 참여한 출판사는 보리, 계수나무, 내인생의 책, 문공사, 느림보, 길벗어린이, 사과리, 삼성BNC, 사계절, 아람출판사다.

‘어린이날, 옛날에는요?’는 씨너스 이체 1층 로비에서 열렸는데, 오래전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대한뉴스를 통해 어른에게는 추억의 시간을,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어렸을 적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입남속 차장 sang@print.or.or